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사례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CONTENTS

Part 1 | 학생부

01 대상 AI 시대를 향해하는 예비 공학도의 지식 나침반, 디지털집현전 김00 4p

02 우수상 디지털집현전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확충 사례 홍00 9p

03 장려상 흩어진 지식의 조각으로 미래의 길을 열다 김00 12p

04 디지털집현전이 열어준 새로운 탐구의 세계 김00 18p

05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등대를 찾아서 김00 22p

06 디지털집현전과 내가 만난 '김포 장릉' 우00 26p

07 교통안전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활용 수기 한00 32p

Part 2 | 일반부

01 대상 세상의 모든 지식, 디지털집현전으로 현명(賢明) 하게 학생 지도에 활용하기 박00 36p

02 최우수상 두 번째 공구, 가족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 설계도 이00 41p

03 우수상 검증된 정보를 찾아서 장 0 46p

04 장려상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고00 48p

05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김00 53p

06 아들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우며 송00 65p

07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청년 자립의 길을 찾다 유00 69p

대상

AI 시대를 향해하는 예비 공학도의 지식 나침반, 디지털집현전

김00



Ⅰ.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ㅇㅇ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과학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김ㅇㅇ입니다.
평소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잦고, 최근에는 인천시 대표로
'항공우주 꿈나무 NASA · Caltech 탐방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예비 공학도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먼저 찾았습니다. 방대한 인터넷 정보를 순식간에 요약해 주는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종종 명백한 오류를 보여주거나, 인터넷 자료를 요약하는 수준에 그쳐 깊이 있는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때 '디지털집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데이 김계중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항공우주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 20명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와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을 방문해 항공우주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은 NASA JPL을 방문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이끈 한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제 우주선 통신 과정을 관찰하며 우주 탐사의 최전선을 체험했다.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주 탐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과학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생생한 조언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Caltech에서는 '태양계 9번째 행성' 이론으로 유명한 마이크 브라운 교수의 강연을 통해 태양계 행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최첨단 과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우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한층 더 키웠다.

탐방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과학자를 직접 만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과학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투데이 2025년 2월 4일 보도기사]

Ⅱ. 본론

최근 저는 '엔트로피(Entropy)'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교과서적 정의를 넘어, 이 개념이 기계공학과 우주 법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생성형 AI, 구글, 그리고 디지털집현전을 각각 활용해 보았습니다.

1) 생성형 AI (ChatGPT 등): "빠르지만 얕은 요약"

장점: '엔트로피가 뭐야?'라는 질문에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기본 개념을 요약해 줍니다. 복잡한 개념을 일상 언어로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단점: "엔트로피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저의 경험처럼, 깊이 있는 통찰이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때때로 틀린 정보를 제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보고서에 인용하기 부적절했습니다.

2) 구글(Google) 검색: "광활하지만 혼란스러운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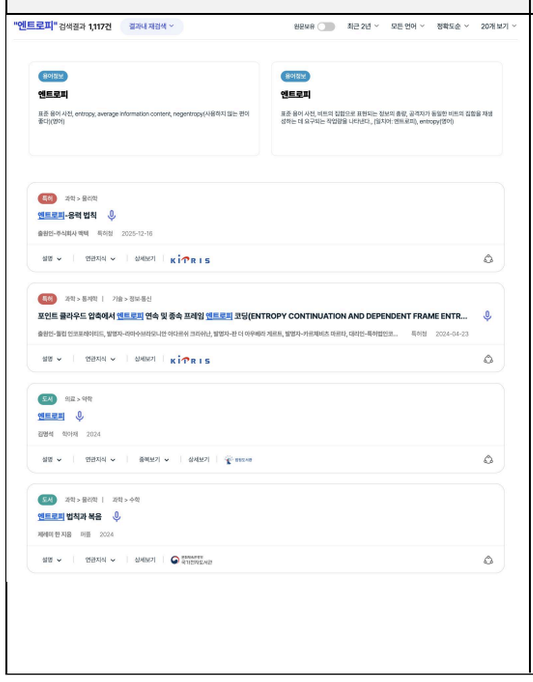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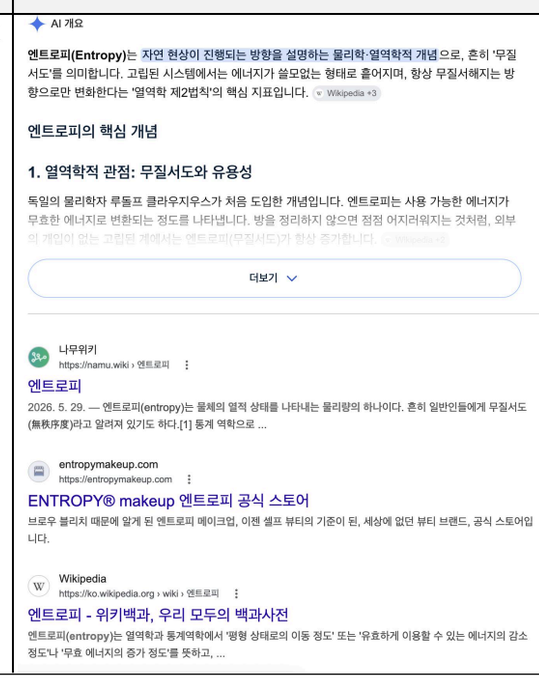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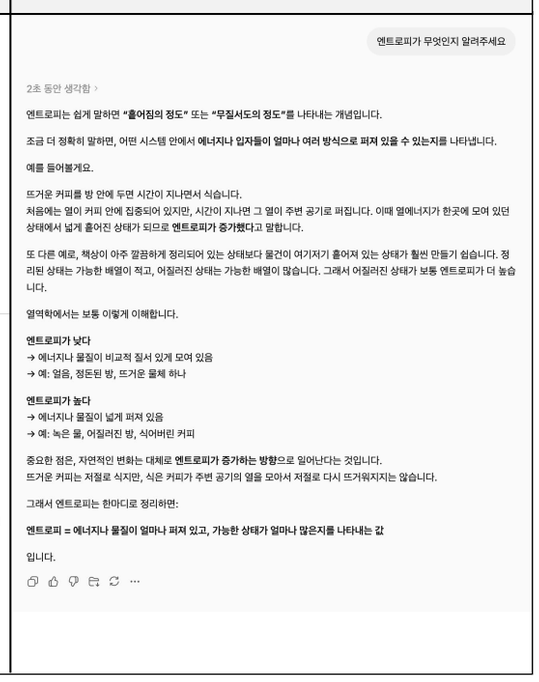
장점: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블로그, 뉴스, 영상, 학술 자료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점: '정보의 바다'가 아닌 '정보의 홍수'에 가깝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찾기까지 수많은 광고와 블로그, 출처 불명의 글을 솎아내야 했습니다. 원하는 전문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3)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깊이, 학술의 등대"

장점: 제가 찾던 논문과 전문 보고서가 모여 있었습니다. '엔트로피'를 검색하자, 단순 개념 설명을 넘어 통계역학적 접근, 공학적용 사례, 심지어 우주론과 연결 짓는 국내 우수 학술 자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를 통해 '무질서도'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선 엔트로피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점: 검색 인터페이스가 구글처럼 직관적이거나 빠르지 않고, 자료의 범위가 학술 정보에 집중되어 일상적인 정보 검색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집현전	구글	챗GPT
		

4) 디지털집현전의 확장성을 위한 제안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생성형 AI가 주지 못하는 '신뢰'와 구글 검색이 주지 못하는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집현전이 더욱 신뢰받는 국가 대표 지식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사용자 친화적 UI/UX 개선:** 현재의 검색 방식도 훌륭하지만, 구글과 같이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검색 인터페이스와 필터 기능을 도입한다면 이용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② **생성형 AI와의 '신뢰할 수 있는' 결합:** 생성형 AI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디지털집현전이 보유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 챗봇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플랫폼 내의 논문과 보고서를 요약해 주되, 그 근거(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저와 같은 학생들이 AI의 편리함과 학술적 신뢰도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최신 해외 학술 자료 연동 확대:** 저와 같이 항공우주나 첨단 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최신 해외 연구 동향이 중요합니다.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해외 학술 DB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디지털집현전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바랍니다.

III. 결론

저에게 디지털집현전은 '믿고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든든한 온라인 연구실입니다.
생성형 AI가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면, 디지털집현전은 그 길이 맞는지 검증해 주는 '지도'이자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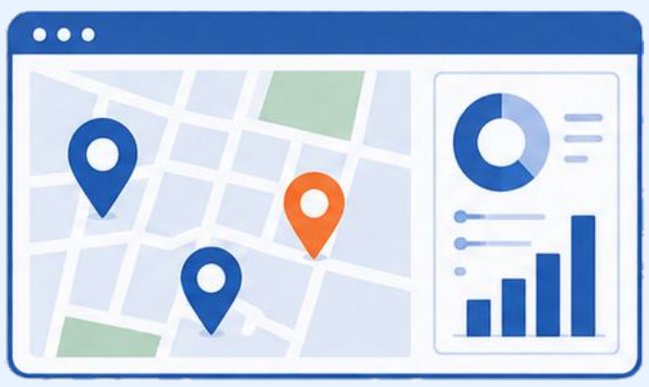
앞으로도 저는 기계공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업 과정에서 디지털집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디지털집현전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가장 신뢰받는 지식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우수상

디지털집현전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체육 인프라 확충 사례

홍00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및 준비 과정

제가 졸업한 중학교의 기존 농구장은 축구장과 같은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질퍽해져 사용이 불가능했고, 맑은 날에는 모래바람이 심해 호흡기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끝난 뒤 탄천 인근 농구장까지 도보로 40분 이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시간 낭비가 발생하였고, 체육활동 참여율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학교 운동장 내에 PP 연동타일 바닥의 야외농구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공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학교 예산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에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집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보고서를 탐색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활용한 디지털집현전 자료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현장 인식 연구」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지역주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통해 학교시설이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방향 연구」 (인천연구원)

중앙정부의 생활 SOC 정책과 인천시의 체육시설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질 중심의 운영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친환경 인프라 도입,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말씀드리며, 학교시설의 공공성·지속가능성·지역균형발전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이 승인되었고, 실제로 농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농구장이 완공된 이후, 그 공간은 학교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완공된 농구장에서 중학교 농구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 학생들도 초청하여 교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주말에는 옆 지역 학생들과 자발적인 교류 시합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젝트는 디지털집현전의 공공데이터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여,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실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완공된 야외 농구장]

느낀 점

디지털집현전의 자료는 저에게 단순한 참고문헌이 아니라, 제가 꿈꾸던 정책 실행의 논리적 근거이자 실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가 청소년의 실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직접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과 같은 지식정보 플랫폼이 청소년이 공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려상

흩어진 지식의 조각으로

미래의 길을 열다

김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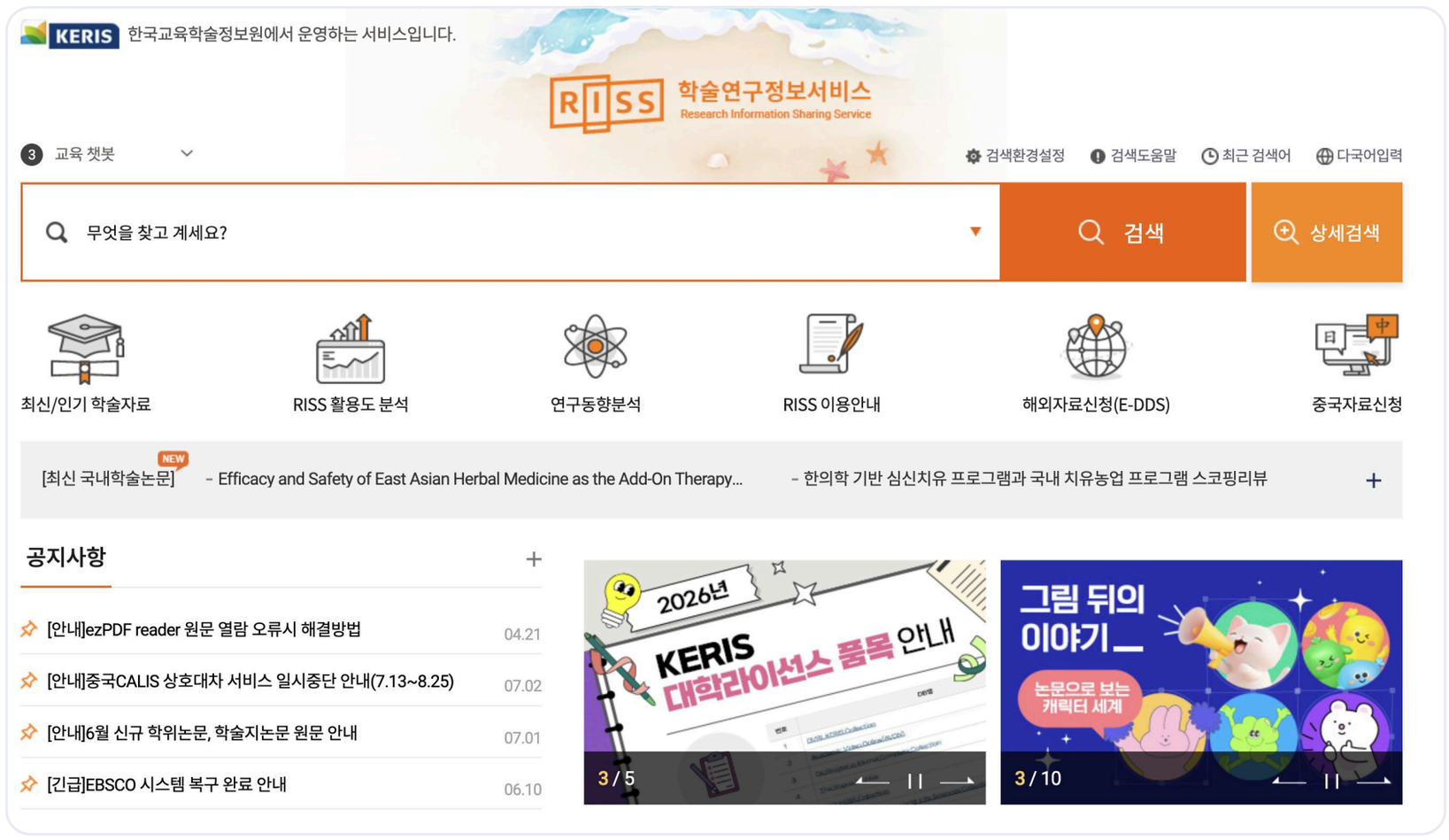


흩어진 지식의 조각으로 미래의 길을 열다

처음, 막막함 속에서 출발하다

석사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작년 겨울, 제 앞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AI 기반 육군 위험성 평가 지원체계(ARAS)'. 군 작전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였습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자 방대한 자료와 생소한 개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NKIS, SCIENCE ON, 국방부, 통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헤맸습니다. 사이트마다 로그인 방식이 다르고, 검색 결과도 제각각이라 하루 종일 자료를 모아도 정작 핵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워드 화면의 커서를 멍하니 바라보던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게 작은 빛이 되어준 곳이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였습니다. 'AI', '군사', '위험성'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논문을 따라 참고문헌을 읽고, 다시 그 논문에서 새로운 선행 연구를 찾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주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숲에서 길을 찾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는 쌓였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책 자료를 보면 기술적 근거가 궁금해지고, 기술 보고서를 보면 법적 제약이 걸렸습니다. 각 분야의 정보들이 제각각 존재할 뿐, 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 연구 보고서를 찾다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 바로 "디지털집현전"이었습니다.

흩어진 지식의 조각으로 미래의 길을 열다

호기심에 검색창에 'AI 군사'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그동안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며 찾아야 했던 논문, 기술보고서, 정책자료가 한 화면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마치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전엔 보이지 않던 흐름이 생겼고, 연구의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은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라 제가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지식의 지도였습니다. 정보가 이어지자 생각이 깊어졌고, 논문의 구조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연구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다

"디지털집현전"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제 연구의 틀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고, 정책·기술·법제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통째로 자료 검색에 써야 했지만, 이제는 수집보다 분석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초안을 다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이처럼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며 연구의 줄기가 세워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연구의 방향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1차 논문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으며,
이제 곧 논문 완성 및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변화의 출발점은 분명 "디지털집현전"이었습니다.

뜻밖의 연결이 새로운 길을 열다

"디지털집현전"은 단순히 연구를 돕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AI와 군사 분야 자료를 찾던 어느 날, 플랫폼이 추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처럼 보였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군사 작전과 응급이송은 모두 시간과 정보, 그리고 판단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의 정보분석 기술을 민간의 응급이송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결의 경험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이름하여 'AI 기반 강원 응급이송 최적화 플랫폼 – SmartAid'. 군 작전의 경로 탐색 원리를 응급이송 시스템에 적용해 AI가 병원 위치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가장 빠른 이송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25년 10월, 한림대학교 AI 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흩어진 지식의 조각으로 미래의 길을 열다



지식을 잇고, 미래를 그리다

돌아보면, 제 연구 여정은 흩어진 지식의 조각을 하나로 잇는 과정이었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은 그 길 위의 나침반이자, 새로운 지식을 비춰주는 등대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자료 창고가 아니라 학문·기술·정책·행정의 경계를 넘어 지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주는 국가 지식의 허브입니다. 덕분에 저 같은 학생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지식은 쌓이는 힘보다, 이어지는 힘에서 진정한 가치가 나온다는 것. 국가의 지식정보가 개인의 연구를 성장시키고, 그 연구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 그 중심에 "디지털집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학생이 아니라, 지식을 잇고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은 흩어진 지식을 모아 서로의 생각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의 지도입니다. 제게는 연구의 방향을 밝혀준 등대였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또 하나의 집현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집현전이 열어준
새로운
탐구의 세계

김00



[지식의 길목에서]

>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
> – 스티븐 스필버그

내가 탐구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떠올리곤 하는 문장이다. 탐구란 호기심이라는 불씨로 시작되어,
결국 그 불씨로부터 질문을 피워내고, 그 질문을 따라가며 답을 찾는 여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은 마치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을 한줄기 남겨놓는 것만 같아 늘 설렜다.
그러나 이 여정의 초입에서 나는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을 찾아 수십 개의 검색창과 마주했고,
수많은 링크 위에서 길을 잃었다. 보고서 하나, 논문 하나를 찾아내는 일이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일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국내 식품생물학, 발효공정, 생명공학 분야 자료들은 다양한 기관마다 흩어져 있었다.
내가 진행 중이던 ‘보리에서 추출한 멜라노이딘의 항균 효과 탐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농촌진흥청의 보고서, 식약처의 안전성 자료, 식품과학회의 논문 그리고 특허 문헌
등이 필요했지만, 각기 다른 포털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각각의 사이트마다 로그인 방법도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 문서는 열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것은 제목만이 남아있었다.
열심히 탐색한 결과가 수없이 마주한 미로의 막힌 벽이다 보니, 나의 탐구 욕구를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지치곤 했다. 연구실에 있는 시간보다 끝없는 인터넷 창과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그렇게 나는 질문보다 탐색자가 되었고,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정보 검색만을 떠올리니 전처럼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한 문]

그러다가 어느 날, 동아리 수업 시간에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알게 되었다.
이름은 디지털집현전. ‘디지털’과 ‘집현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단어들의 만남은 새로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다. 또 하나의 검색창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키워드 하나를 입력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검색창에 ‘멜라노이딘’이란 단어를 입력하자, 농촌진흥청의 보고서, 식품과학회 논문, 식약처 안전성 자료,
관련 특허가 순차적으로 표시되었다. 더 놀라운 건 각 자료의 출처와 발행 연도, 연관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학술 자료의 수많은 파편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내가 수개월간 찾아 헤매었던 자료들이 모두 한 플랫폼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디지털집현전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나의 연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탐구의 구조를 보다]

이제 나에게 디지털집현전은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다. 그곳에서 나는 각기 흩어진 연구들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다. 논문, 보고서, 특허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그 사이에는 공통된 문제의식과 탐구의 맥락이 있었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가?” 그 질문이 나에게 탐구의 구조를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
이전에는 자료를 찾는 일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일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각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계를 살피는 일이 되었다. 수많은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파편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연구자들의 사고의 흐름을 발견하였고, 그 흐름이 깜깜한 밤 속에 머물러 있던 나의 탐구를 비추는 달빛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지식을 단편이 아닌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

[탐구의 구조를 설계하다]

탐구의 구조를 이해한 뒤, 나는 그 통찰을 실험 설계로 옮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선행 연구를 참고하며 동일한 조건을 반복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각 연구가 가진 맥락 속 변수를 하나씩 분리해보려고 한다.
보리 속 멜라노이딘 항균 효과 검증 실험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배양 환경, 용매 조건, 측정 방식 등의 세부 요소를 비교/분석하며 ‘왜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험을 다시 설계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수치들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응축된 결과였고, 나는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며 나만의 탐구로 재구성하였다. 덕분에 초기 실험 단계에서의 시행착오가 크게 줄었고, 결과 해석의 폭도 넓어졌다. 이제 나는 선행 연구를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지식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디지털집현전은 나에게 방대한 데이터 창고가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탐구의 지도이다.

[연결의 책임을 배우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태도에서 왔다. 탐구는 단지 결과만을 얻는 과정이 아니다.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나는 데이터 접근이 쉬워졌다는 사실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의 책임감’이라는 숙제를 마주했다.
단지 정보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잇고 나만의 해석을 더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이후의 실험 보고서에서 단순히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모든 출처를 명시하고 각 연구의 전제 조건을 함께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결과가 예상과 달랐을 때도 선행 연구의 한계를 되짚으며 그 차이의 근원을 해석하려 노력했다. 작은 한 줄의 데이터라도 그것을 쓴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는 일이 나에게는 새로운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탐구자는 결과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흐름 속에서 책임감 있게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나는 연결의 책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유를 설계하는 태도임을 배웠다.

[다시, 길의 시작에서]

나는 합성생물학과 생명공학을 나의 진로로 삼았다. 수많은 정보의 바다를 건너야 할 것이고,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제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 바로 디지털집현전이다.
디지털집현전은 학생과 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식을 쉽게 탐색하고 새로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의 길잡이이자 길동무이다.

지식은 거대한 산맥처럼 웅장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이사이의 길을 내고 찾는 것은 인간의 사유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탐구의 맥락을 엮는 사람이다.

디지털집현전은 나에게 단순한 검색 플랫폼이 아니라, 탐구 여정을 설계하게 만든 동반자였다.
그저 하나의 검색창이라 생각했던 디지털집현전은, 나의 탐구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지식이 내 손끝에서 엮여갈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나는 늘 묻는다.
내가 설계할 탐구는 단지 선행 연구를 모방한 또 하나의 연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과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디지털집현전과 함께 여기에서 시작된다.
언젠가 내가 오늘 남긴 발자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여정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디지털집현전의 창을 연다.

AI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등대를 찾아서

김00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등대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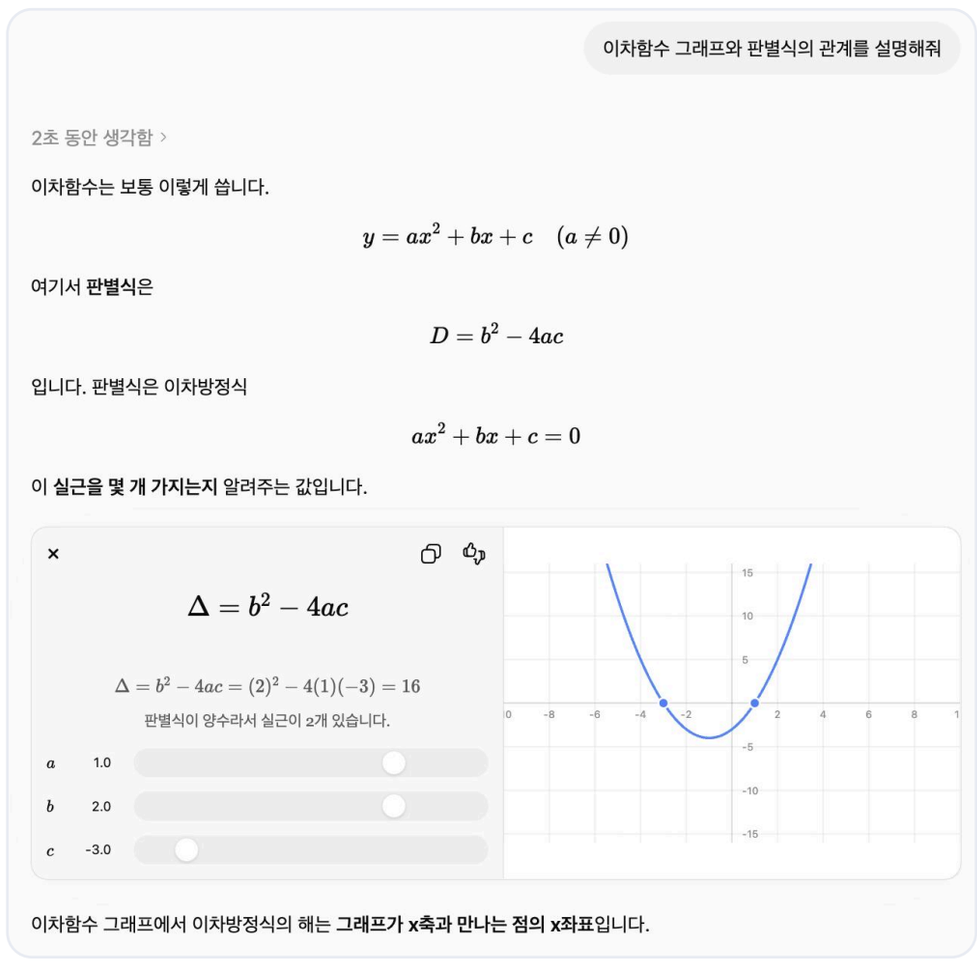
작년, 중학생의 시각으로 '디지털집현전'과 '구글'을 비교하는 체험수기를 작성했던 저는 운 좋게도 특별상이라는 값진 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집현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나만의 도우미'라고 표현했습니다.
막연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학술 자료를 찾아주던 집현전은 저에게 '비밀 병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저는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더 깊게 탐구하고자 과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화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도우미'였던 디지털집현전을 찾는 빈도도 훨씬 잦아졌습니다. 이제 집현전은 저에게 '비밀 병기'가 아닌, 학습과 탐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세상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저 또한 과제를 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GPT를 곧잘 활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 동아리 활동과 수학 심화 학습을 병행하며,
저는 이 '편리한 도구'가 가진 명확한 한계를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수학'이라는 가장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할 학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시간에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배우던 때였습니다. 저는 $y = ax^2 + bx + c$의 그래프와
이차방정식 $ax^2 + bx + c = 0$의 판별식 D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왜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 원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역시 챗GPT였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판별식의 관계를 설명해줘"라고 질문했습니다. 챗GPT는 몇 초 만에 "판별식 D는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D > 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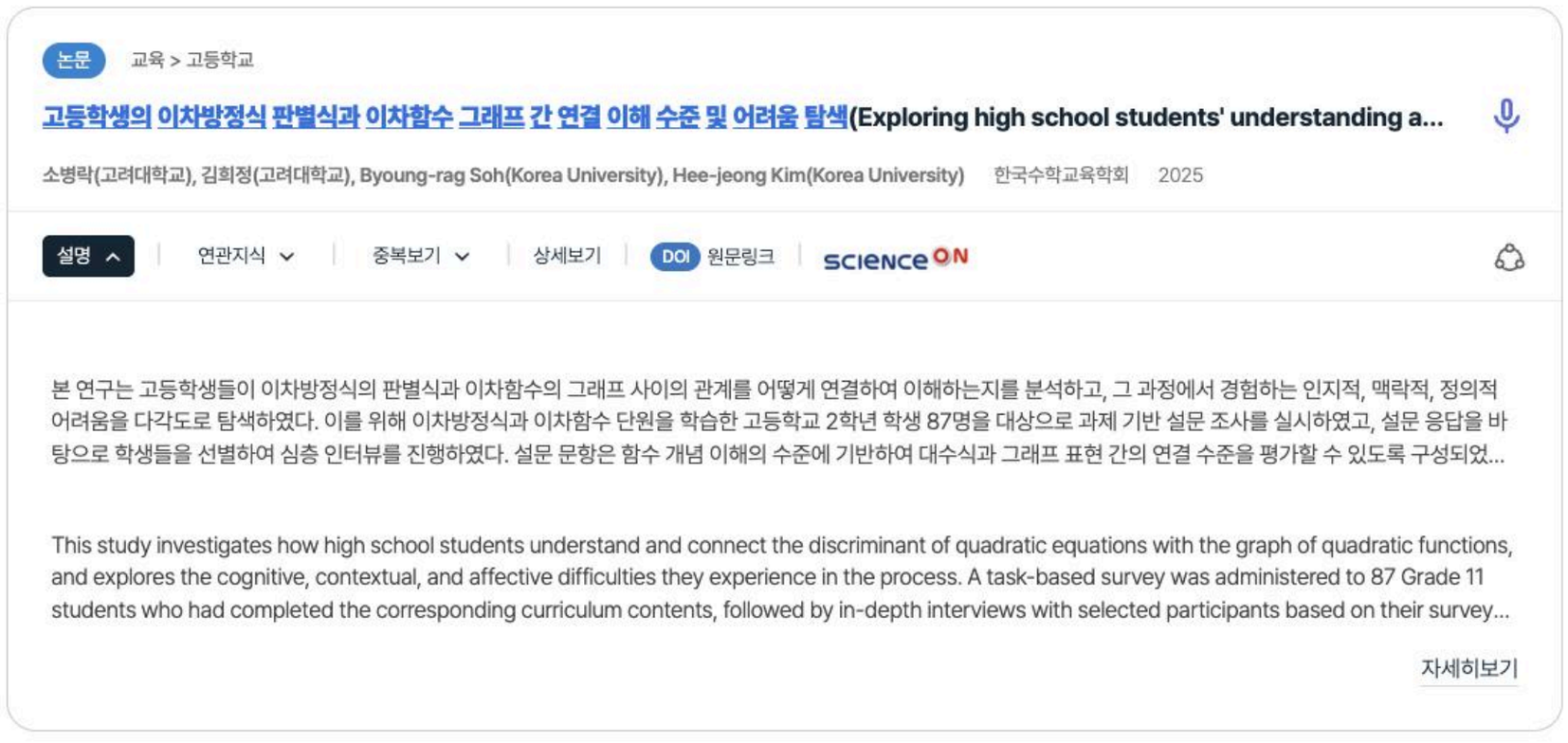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등대를 찾아서

하지만 이 답변은 제가 이미 교과서에서 읽은 '결과'의 반복일 뿐, '왜?'라는 저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작년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찾으며 느꼈던 얕음, 바로 그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작년의 경험을 떠올리며 곧장 디지털집현전의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차함수 판별식 관계', '판별식의 기하학적 의미'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RISS와 DBpia에서 제공하는 몇 편의 수학 교육 관련 논문과 대학 강의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논문 자료는 이차함수의 꼭짓점 좌표 $(-b/2a, -(b^2-4ac)/2a)$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판별식 D가 어떻게 그래프의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판별식이 단순히 근의 개수를 세는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니라, 함수의 최솟값 또는 최댓값과 x축(y=0)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 2. 디지털집현전 답변]

챗GPT가 '암기해야 할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집현전의 논문은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선물했습니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하게 요약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집현전은 '검증된 지식'과 '학술적 근거'라는 든든한 등대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는 이제 챗GPT의 요약본이 아닌 집현전에서 찾은 원본 논문을 인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특별상 수상자로서, 그리고 디지털집현전의 'N년차' 사용자로서 애정을 담아 한 가지 아쉬운 점과 제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등대를 찾아서

먼저 아쉬운 점은, 작년과 올해의 집현전이 거의 변함없이 '익숙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AI가 일상화된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검색 편의성 면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의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챗GPT의 편리함과 집현전의 신뢰성을 동시에 경험했듯이, 만약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디지털집현전의 신뢰도 높은 학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가칭 '집현전 챗')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차함수와 판별식의 관계가 궁금해"라고 질문했을 때, 챗GPT처럼 그럴싸한 답변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집현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A 논문과 B 강의 자료에 따르면..."이라며 정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하고 해당 자료를 바로 링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AI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 저에게 '비밀 도우미'였던 집현전은 올해 '신뢰할 수 있는 학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과학 탐구 여정에 디지털집현전이 지금처럼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모음집

디지털집현전과 내가 만난 '김포 장릉'

우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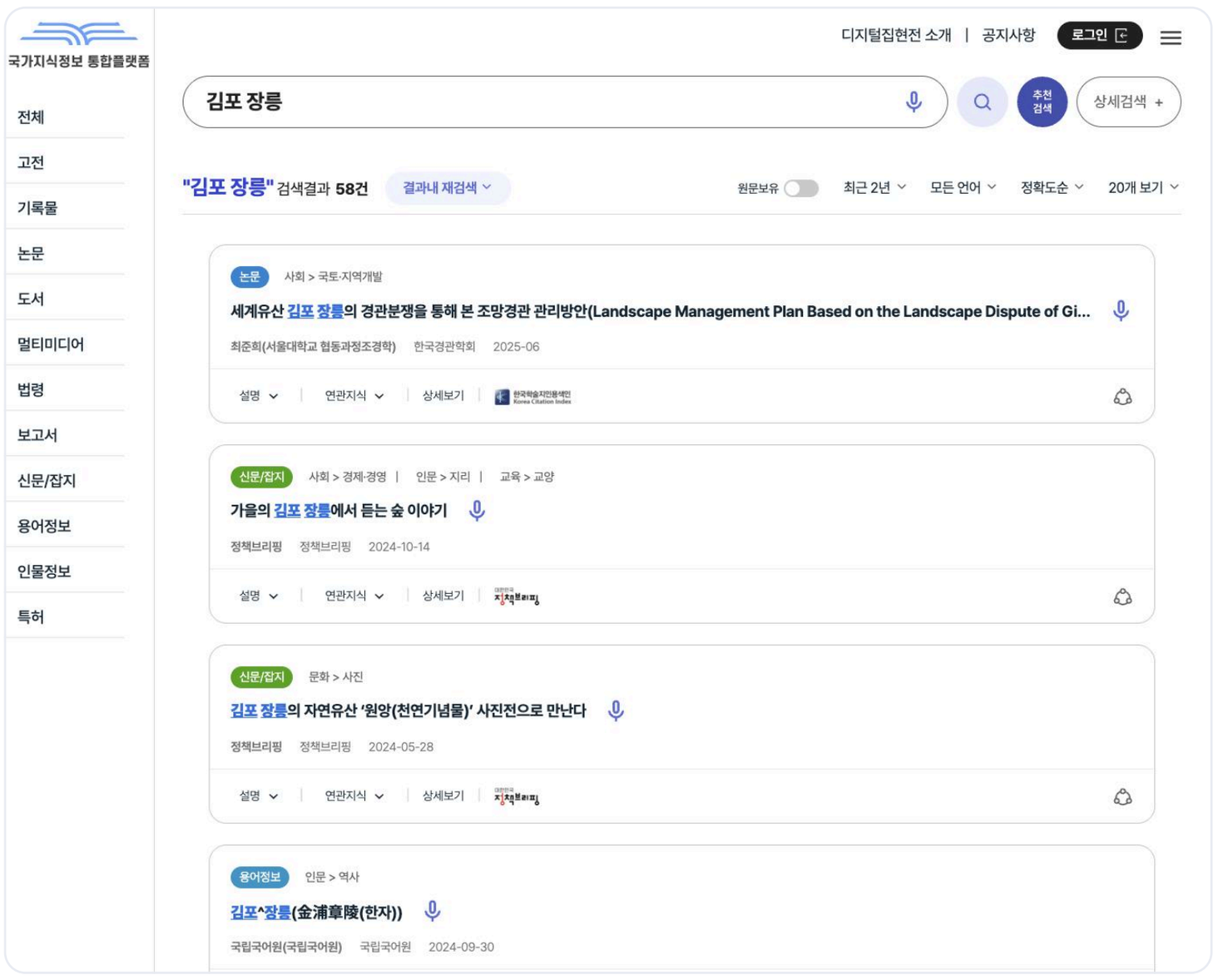


1. 명절, 길 옆의 세계유산

추석 성묘를 마치고 김포공원묘원에서 내려오는 길, 울퉁불퉁한 흙길 사이로 돌담과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김포 장릉이야.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돼서 세계유산에서 제외될 뻔했대."

그 순간, 고요한 숲길에 보이지 않는 '시선의 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릉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하늘과 풍경. '눈으로 보는 길'이 막히면 역사도 막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속에 들어왔고, 국사 수업의 과제로 '김포 장릉과 세계문화유산'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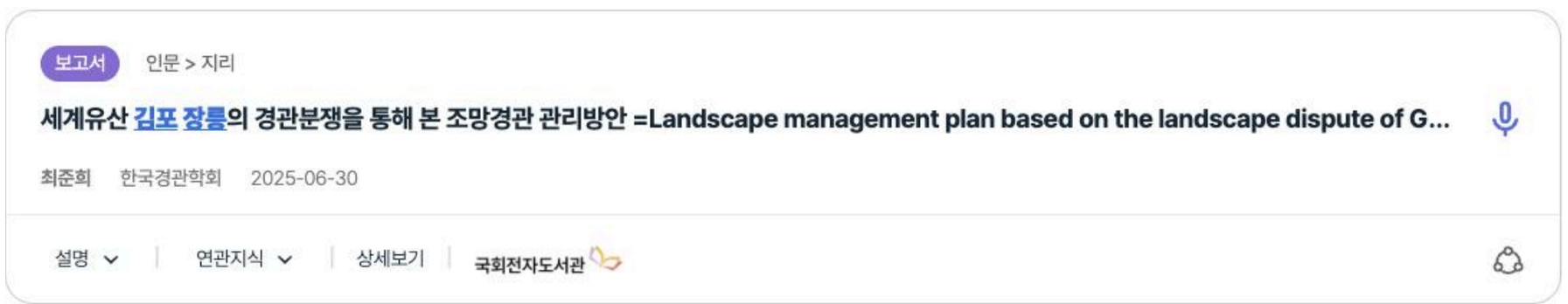
2. 정보의 파도 앞에서

처음엔 평소처럼 포털을 뒤졌습니다. 기사, 블로그, 영상… 하지만 바다는 넓고, 파도는 비슷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수업에서 소개했던 "디지털집현전 전 국민 지식 플랫폼"이 떠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이 검증한 지식이 모여 있다는 말이 저에게는 구명조끼처럼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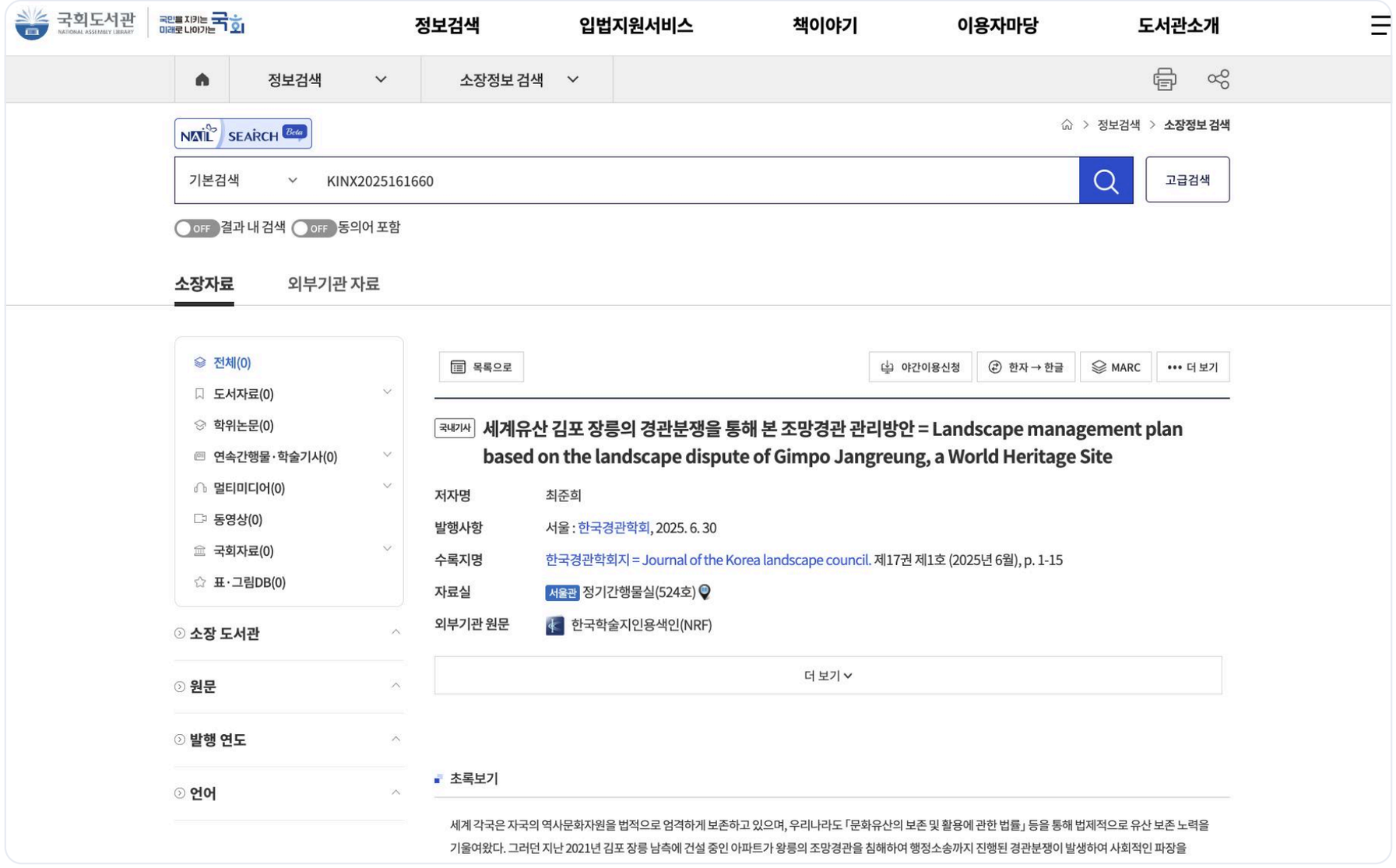
3. 디지털집현전, 나만의 항해지도

검색창에 ‘김포 장릉’을 입력하자, 결과 옆에 ‘기관·유형·기간’ 필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최근 5년, 보고서/논문으로 범위를 좁혔고, 국회도서관·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키워드여도 기관별로 다른 설명과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어, 자료의 성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한 문서는 제목부터 제 질문을 잡아끌었습니다. 「세계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분쟁을 통해 본 조망경관 관리방안」. ‘관리방안’이라는 단어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림 2. 디지털집현전 ‘김포 장릉’ 검색 - 국회도서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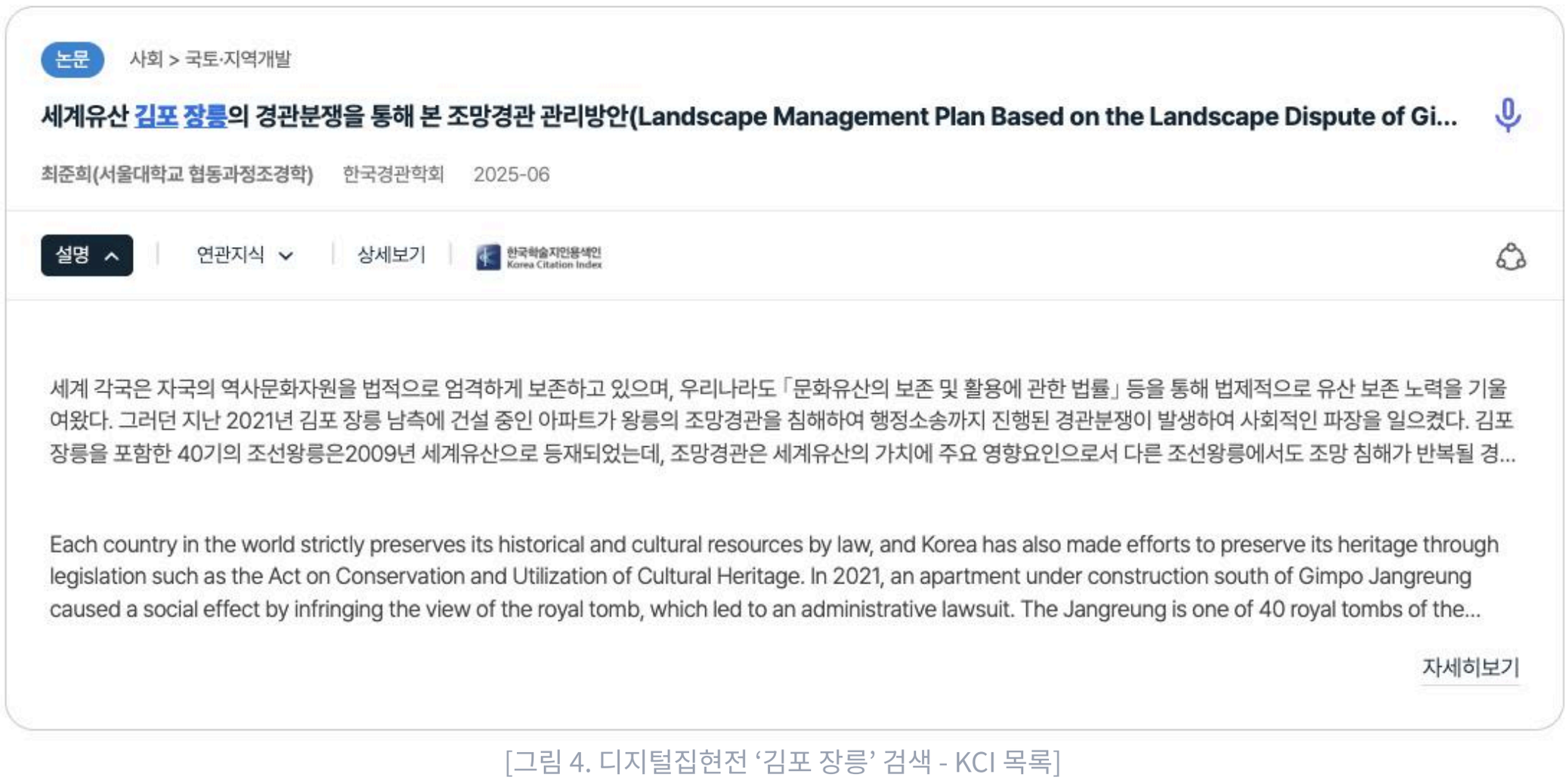
4. 문서가 들려준 세 가지 이야기

문서를 읽으며 저는 세 가지 문장을 노트 맨 위에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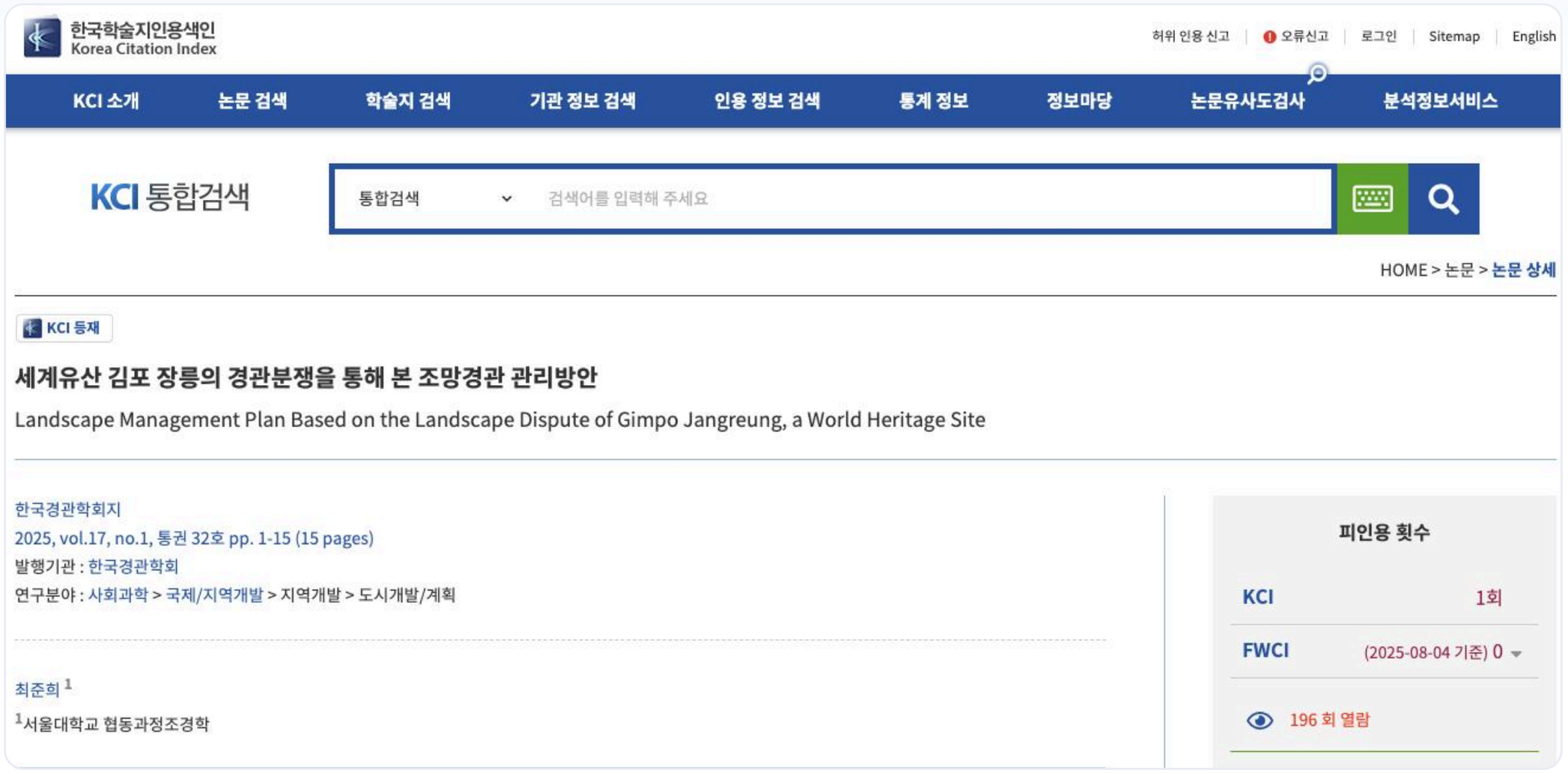
첫째, 세계유산의 가치는 눈으로도 지켜진다. 왕릉의 건물과 유적만이 아니라, 그 시선이 걸어가는 길(시선축), 멈추는 자리(시점), 펼쳐진 풍경(시경)까지 가치의 일부라는 사실. 저는 ‘조망경관’이 그냥 멋진 풍경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지도 위의 선 하나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문서에는 ‘완충지대(버퍼존)’와 ‘경관 기준’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높이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얼마만큼 보이는가(가시율) 같은 정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갈등도 명확하게 풀립니다.

셋째, 보존은 멈춤이 아니라 설계다. 전문가 · 주민 · 지자체가 함께 시뮬레이션을 보며, 높이 · 색채 · 형태를 조정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보존 = 금지’가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미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림 4. 디지털집현전 ‘김포 장릉’ 검색 - KCI 목록]



5. 내가 만든 작은 지도

자료를 읽고 저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나만의 항해지도'처럼 단순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문제:** 김포 장릉의 조망경관을 위협하는 개발 이슈

◯ **왜 중요한가:** 조망은 세계유산의 가치(OUV)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유산

◯ **배운 것:** 완충지대만으로는 부족 → 정량 기준(시점·가시율·시거리)이 필요

◯ **내 제안**

–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가시권·그림자·색채 시뮬레이션 의무화

– 주민·전문가·지자체가 함께 보는 공개 검토회의 정례화

– 학생·시민도 이해하기 쉬운 조망경관 안내도를 현장에 설치

발표가 끝난 뒤 선생님은 "자료의 출처와 메타데이터를 정확히 적은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디지털집현전 덕분에 '확실한 근거'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 플랫폼이 내 공부에 남긴 것

공부를 하다 보면, 인터넷은 때로 너무 많은 답을 줍니다. 그 사이에서 '진짜'에 닿으려면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집현전은 저에게 세 가지 습관을 남겼습니다.

1. 먼저 믿을 수 있는 출처를 찾기 – 기관, 발행연도, 식별자부터 확인

2. 필터로 질문을 좁히기 – 기간/유형/주제를 정하고 시작

3. 메타데이터로 인용 남기기 – 다시 찾아도 같은 자료에 도달할 수 있게

이 습관은 역사 과제뿐 아니라 과학 탐구, 사회 토론, 영어 발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플랫폼 하나가 공부 전체의 방식을 바꿔 주었습니다.

7. 결론: 보이지 않는 길을 지키는 일

장릉 숲길에서 처음 느꼈던 그 '시선의 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

디지털집현전은 그 길을 지키는 방법을 근거와 데이터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경험 이후, 저는 주변의 풍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풍경 속에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활용 수기

한00

1. 서론

국가지식 플랫폼을 활용한 불안한 통학로의 현황과 이슈 파악

등교 길의 안전은 매일 불안하다. 어떤 날은 차가 조금 더 많고, 어떤 날은 코너에서 택배차가 길을 살짝 가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늘 같았다. 학생들이 차와 아주 가깝게 스치듯 지나간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슈를 매번 느끼고,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에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지 나는 생각해 보았고, 국가는 어떻게 통학로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통학로 사고를 시간대별, 유형별로 찾아보니, 등하교 시간대에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충돌, 가로지르기가 반복되는 지점이 뚜렷하게 나왔다. 이른바 통학로의 위험 핫스팟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차로에서 모서리까지 바짝 붙어 선 차량들이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블라인드 코너'를 만들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 주변은 법으로 시속 30km/h 이하가 원칙이고(도로교통법 제12조), '안전속도 5030'으로 기본 제한속도가 낮아졌지만, 표지판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느끼고, 자료에서도 충분히 보고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슈로, 속도를 낮추고, 통학생들과 운전자가 서로를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동선을 차와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보기로 하였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속도관리 매뉴얼과 미국연방도로청(FHWA)의 검증된 안전대책 등도 참고하여 대책 방안을 찾아보았다.

2. 본론

국가지식 플랫폼을 활용한 통학로의 속도, 시야, 동선의 안전 방안 확보

2.1 속도를 낮추는 설계 : "표지판이 아니라 도로가 속도를 말하게"

첫 번째 이슈는 속도이다. 속도는 말로가 아니라 길의 형태가 결정한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통학로 횡단부 두 곳을 '레이즈드 크로스워크(차로를 돋운 횡단부)'로 변경하고 차는 자연스럽게 감속하고, 아이들은 보도와 같은 높이에서 길을 건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적용 중에 있다.

위의 방법은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함께 그에 참조된, FHWA와 여러 지침들을 분석했을 때, 물리적 속도저감이 보행자 중상위험을 줄인다고 권고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신호 교차로에는 '선진보행신호(LPI)'가 있었다. 이것은 보행자가 3–7초 먼저 횡단을 시작하도록 시간을 주면, 회전 차량과의 충돌이 뚜렷하게 줄어든다는 연구와 기술 문헌을 활용하였다. 아이들이 먼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몸으로 신호할 시간을 번 셈이다. 그리고 시속 30km/h 상시 운영을 도로 표지로만 알리지 않는다.
속도표시 장치(표정속도 안내)를 등교 길 방향에 세워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 곡선부에는 차로폭을 살짝 좁히는 보차 공간 재배분(차로 다이어트)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길은 천천히 가는 곳"이라는 메시지가 길의 단면에서 읽히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고속도로청의 자료와 더불어 FHWA PSCi의 문헌을 통한 해결방안을 활용한 결과를 찾았다.

2.2 서로를 더 잘 보이게 '데이 라이팅'으로 코너를 밝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야였다. 교차로 모서리 안 10m 쪽의 주정차를 없애고(빨간 연석), 코너 연석을 앞으로 내민 '커브 확장(보행자 대기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런 '데이라이팅(daylighting)'은 모서리 근처의 시야 가림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교차로 보행자 사고를 유의하게 낮춘다는 지방정부와 교통청 자료가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에 축적되어 있다. 우리는 서울이 아니라 해외 도시의 최신 가이드까지 참고해 근거를 학부모 설명회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었다(NYC DOT Daylighting 2025, FHWA 참조).
결국, 밤길은 빛이 답이었다. 보행자 횡단구역의 직하 조명을 보강하고, 표지판도 고휘도 재귀 반사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2.3 차와 아이의 동선을 떼어내다 : 통학로와 승하차 공간

세 번째는 동선 분리다. 등하교 30~40분만 학교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시차단봉과 안내요원으로 간이 시범 운영을 해보니, 아이들이 빽빽한 차 사이를 헤치지 않아도 되는 변화가 있다는 국가정보원 플랫폼의 문헌에서 찾았다. 해외 가이드는 짧은 시간대 차량 제한이 등하교 안전에 효과적이며,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에 이어 모니터링을 거쳐 적용까지 이어지는 사업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승하차 공간을 학교 정문 직선부에서 50~80m 떨어진 측면도로로 옮겼다. 차는 돌고 아이는 곧장 걷게 동선을 바꾸는 것이다. 이 작은 이동만으로 정문 앞의 이중주차, 후진 회전이 거의 사라졌다는 보고서의 자료가 있다. 이는 디지털집현전 플랫폼에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 스쿨 스트리트(School Streets) 가이드의 사례분석집의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거리에 적용이 시급하다.

3. 결론

국가지식 플랫폼을 통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과 방향

통학로의 재개발 방향은 “속도는 낮추고, 서로를 더 잘 보이게 하고, 동선을 떼어낸다”는 세 가지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생각하고 그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검증된 객관적인 결과였고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핵심 도구였다. 결국, “도로에서 속도는 낮을수록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게 하면 충돌은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 “모서리의 가림 요소를 치우면 서로가 보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다양한 정보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위와 같은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로와 안전한 도로 만들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은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자료들과 연계된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해외 문헌들도 활용하여 더 나은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정보의 플랫폼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첨단미래 기술 AI(인공지능)과 융합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생각과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

세상의 모든 지식,
디지털집현전으로
현명하게 학생지도
활용하기

박00



1. 서론

학생 연구활동, 각종 대회 준비, 그리고 과제연구 과목 지도에서 주제 선정과 탐색 단계는 전체 과정의 핵심이며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과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실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으며, 교사에게도 업무 부담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탐색·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알게 되었고, 실제 수업과 연구활동에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본론

가. 집현전의 강점

집현전의 가장 큰 강점은 '연관지식' 기능과 여러 기관의 지식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검색할 수 있는 '통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관지식' 기능은 학생이 관심을 가진 분야나 문헌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 논문, 특허, 기관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집현전만의 독창적인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면, 기존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탐구 방향을 자연스럽게 발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현전은 학술·문화·교육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통합성'은 집현전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며, 기존처럼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줍니다. 더불어 통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검색 옵션과 정교한 필터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현전의 두 가지 강점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나. 집현전 활용 지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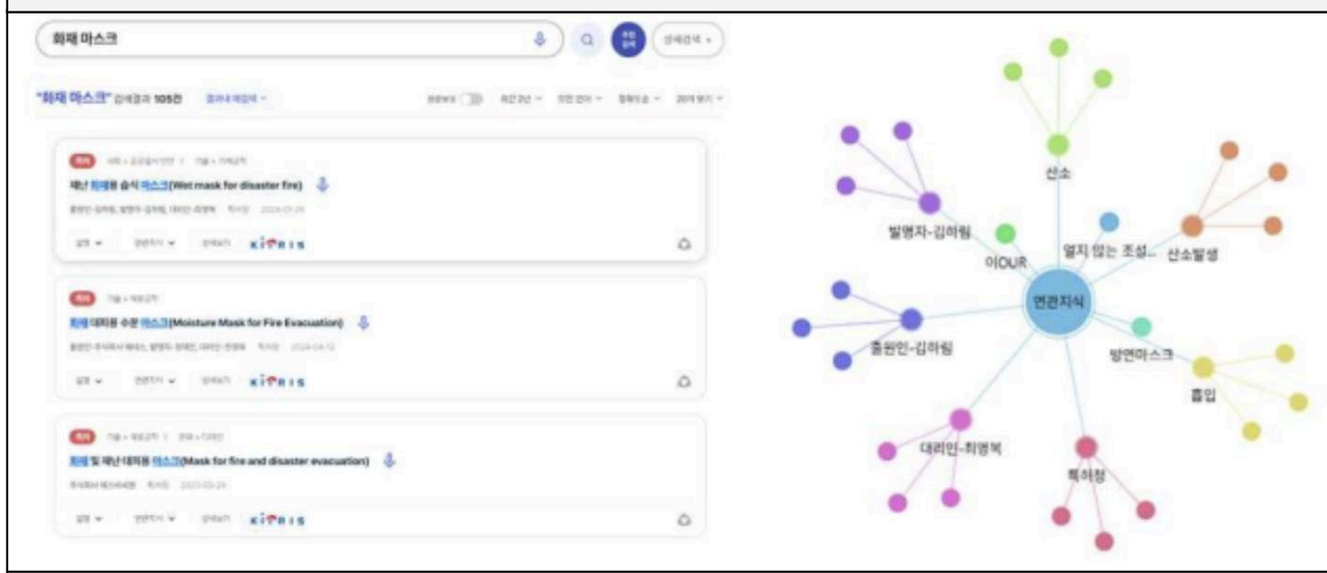
주제선정(탐색)과 자료탐색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핵심 키워드를 설정해 검색해 보도록 지도했습니다.
이후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연관지식과 연관 주제어를 활용해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탐색해 보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관련 개념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주제 후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연관지식 기능 덕분에 단순히 '검색해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지식을 연결해 보면서 탐구 범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 발명지도에 현명(賢明)하게 활용하기

발명대회 및 발명교육 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아이디어인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명 대회 지도에 있어 집현전의 '연관 지식' 영역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특허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어서 학생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활용내용	활용결과
	
1. 특허검색 활용 2. 연관 지식 활용 • 연관 주제어를 통한 유사 발명품이 있는지 확인 • 발명자, 대리인들의 작품을 확인하여 유사한지 확인	

라. 대회지도에 현명(賢明)하게 활용하기

대회지도에 있어서 ‘생체모방’을 주제로 학생들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체모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관 지식 확인을 통해 파도타기 하듯 다양한 생체모방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이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탐색과 학생 개개인별 탐색을 통해 망둑어 기반 생체모방 로봇을 활동 주제로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 연구지도에 현명(賢明)하게 활용하기

연구지도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활용 사이트 외에도 디지털집현전의 연관 지식 확인과 연계 키워드를 기반으로 확장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이 진행된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정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용내용	활용결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확장하고, 조합하고, 결과내 재검색-상세검색 등을 활용하여 자료 탐색	

3. 결론

가. 활용 결과

발명품의 경우, 인천광역시 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특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전국대회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전국대회 출품 과정에서 특허 검색 등에 지도교사로서 검색에 집현전을 활용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지도에 활용하였던 사례들도 인천광역시과학전람회 특상 및 전국과학전람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집현전을 활용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대한민국발명전시회 지도에도 적용하여 학생 동상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존 활동에 디지털집현전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제언

디지털집현전을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몇 가지가 더 보완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 연동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탐구 방향에 대한 간단한 조언도 즉시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집현전을 이용한 수업 구성 또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조금 더 많은 원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현전의 큰 강점인 '연관지식' 기능이 더 다양한 분야와 형식으로 확대되면,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거나 탐구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디지털집현전이 실제 수업이나 연구활동에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우수상

두번째 공구,
가족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 설계도

이OO



[다시 설계도를 펼치다]

어느덧 쉰 살, 금속을 깎아내며 절삭 공구를 개발한 지 20년. 사진 속 반짝이는 금속처럼 내 경력도 단단히 쌓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임금피크제 설명회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지?” 혼란스러운 마음 뒤로 아내와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제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나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자고.
그날의 다짐은 지금도 내 삶을 다시 깎아가는 또 하나의 공구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속에 되살아난 현장]

요즘 들어 산업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SO45001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접근이 까다로워지면서, 연구·개발직 직원들의 실제 설비 운용 역량은 점차 줄어들었고, 현장 이해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한 제품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는 우리 팀에게는 머시닝센터 운용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역량,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속에 펼쳐진 새로운 배움의 공간, 그것이 바로 안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집현전을 통해 안전을 지키다]

안전을 지키는 일은 늘 현재진행형의 과제입니다. 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안전의 핵심 키워드인 '중대재해'를 검색하며, 고전, 기록물, 도서, 논문, 멀티미디어까지 11가지 범주의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그 속에는 과거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과, 미래 재해를 막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정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 안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전파하는 안전지킴이로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 시 사고가 없어도 사법처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의 위험을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각화된 홍보물의 필요성을 느꼈고, 디지털집현전 연계사이트 속에서 발견한 'STEP 일학습병행 패키지 과정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패키지'를 통해 제작한 산업안전 홍보 동영상이 현재 회사 내에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구, 가족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 설계도



[디지털로 지켜낸 안전의 약속]

산업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관리감독자로서,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STEP의 ‘머시닝센터 조작 Virtual Training’ 프로그램은 그 고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제 장비를 다루지 않아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조작법을 익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신입사원 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 대신, 안전이 보장된 사무실에서 스스로 학습(Self-learning)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육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학습 이해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 효율적인 업무 개선 활동은 조직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나에게는 진급 1년 단축과 부서 인센티브라는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기술과 의지가 만나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것을.



[두 번째 공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설계도]

이제 나는 회사 안에서는 안전과 기술의 균형을 맞추는 관리감독자로, 회사 밖에서는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그 다짐 하나로 시작된 나의 배움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 인생 첫 자격증, 인간공학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합격증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인 안전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기사와 위험물산업기사 취득을 향해 또 하나의 공구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금속을 깎고 다듬으며, 나와 가족의 내일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설계도를 펼친다.’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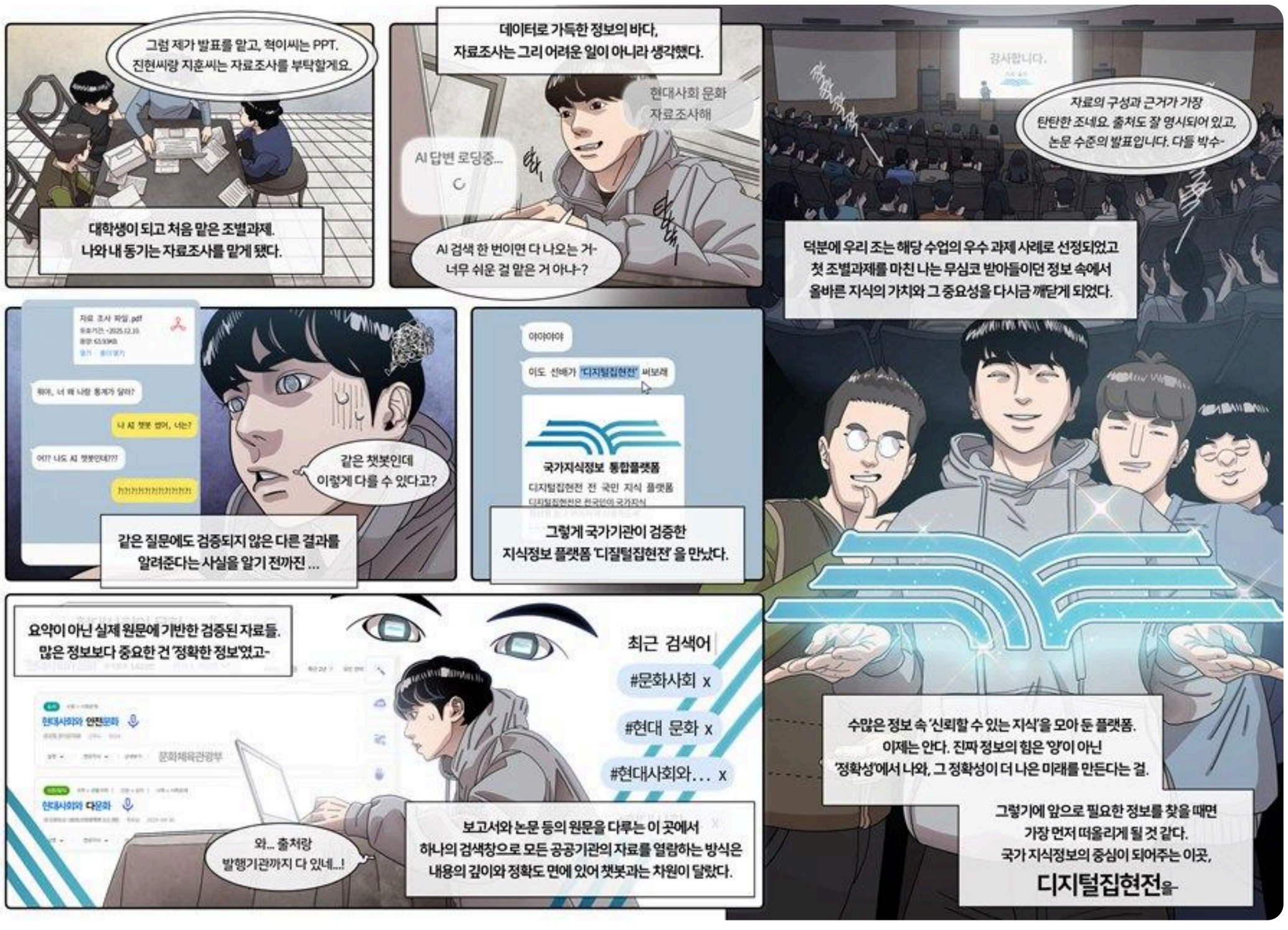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모음집

검증된 정보를 찾아서

장 0



검증된 정보를 찾아서


그럼 제가 발표를 맡고, 혁이씨는 PPT,
진현씨랑 지훈씨는 자료조사를 부탁할게요.
대학생이 되고 처음 맡은 조별과제.
나와 내 동기는 자료조사를 맡게 됐다.
데이터로 가득한 정보의 바다,
자료조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현대사회 문화
자료조사해
AI 답변 로딩중...
AI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 거-
너무 쉬운 걸 맡은 거 아냐?
감사합니다.
자료의 구성과 근거가 가장
탄탄한 조네요. 출처도 잘 명시되어 있고,
논문 수준의 발표입니다. 다들 박수-
덕분에 우리 조는 해당 수업의 우수 과제 사례로 선정되었고
첫 조별과제를 마친 나는 무심코 받아들이던 정보 속에서
올바른 지식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자료 조사 최종.pdf
뭐야, 너 왜 나랑 통계가 달라?
나 AI 챗봇 썼어, 너는?
어!? 나도 AI 챗봇인데!?!?
같은 챗봇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같은 질문에도 검증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
아아아아
이도 선배가 '디지털집현전' 써보래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전 국민 지식 플랫폼
그렇게 국가기관이 검증한
지식정보 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만났다.
요약이 아닌 실제 원문에 기반한 검증된 자료들.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였고-
최근 검색어
#문화사회 x
#현대 문화 x
#현대사회와... x
와... 출처랑
발행기관까지 다 있네...!
보고서와 논문 등의 원문을 다루는 이 곳에서
하나의 검색창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은
내용의 깊이와 정확도 면에 있어 챗봇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많은 정보 속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모아 둔 플랫폼.
이제는 안다. 진짜 정보의 힘은 '양'이 아닌
'정확성'에서 나와, 그 정확성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걸.
그렇기에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다.
국가 지식정보의 중심이 되어주는 이곳,
디지털집현전을-

장려상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모음집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고00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AI를 넘어서는 신뢰, 디지털집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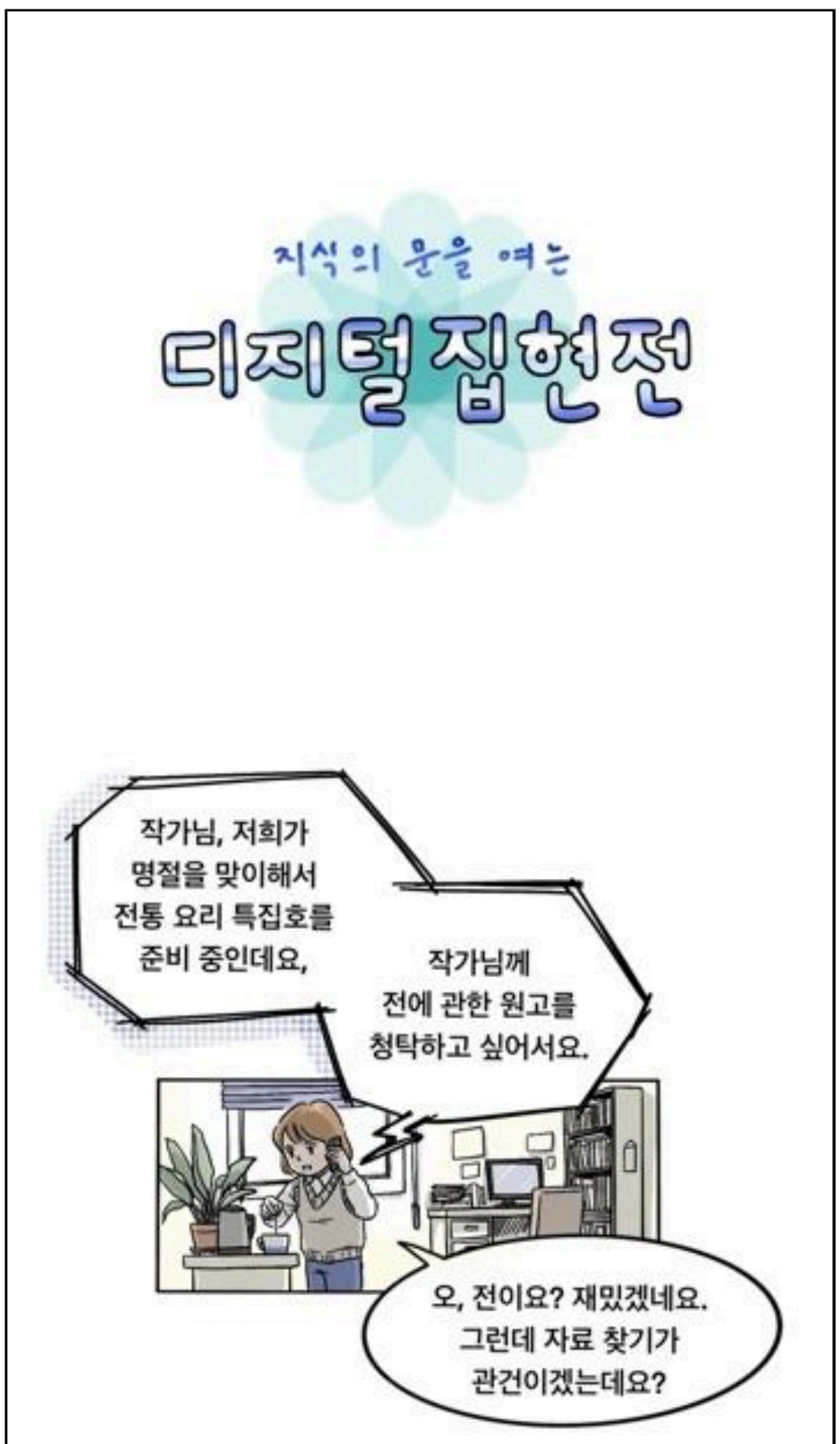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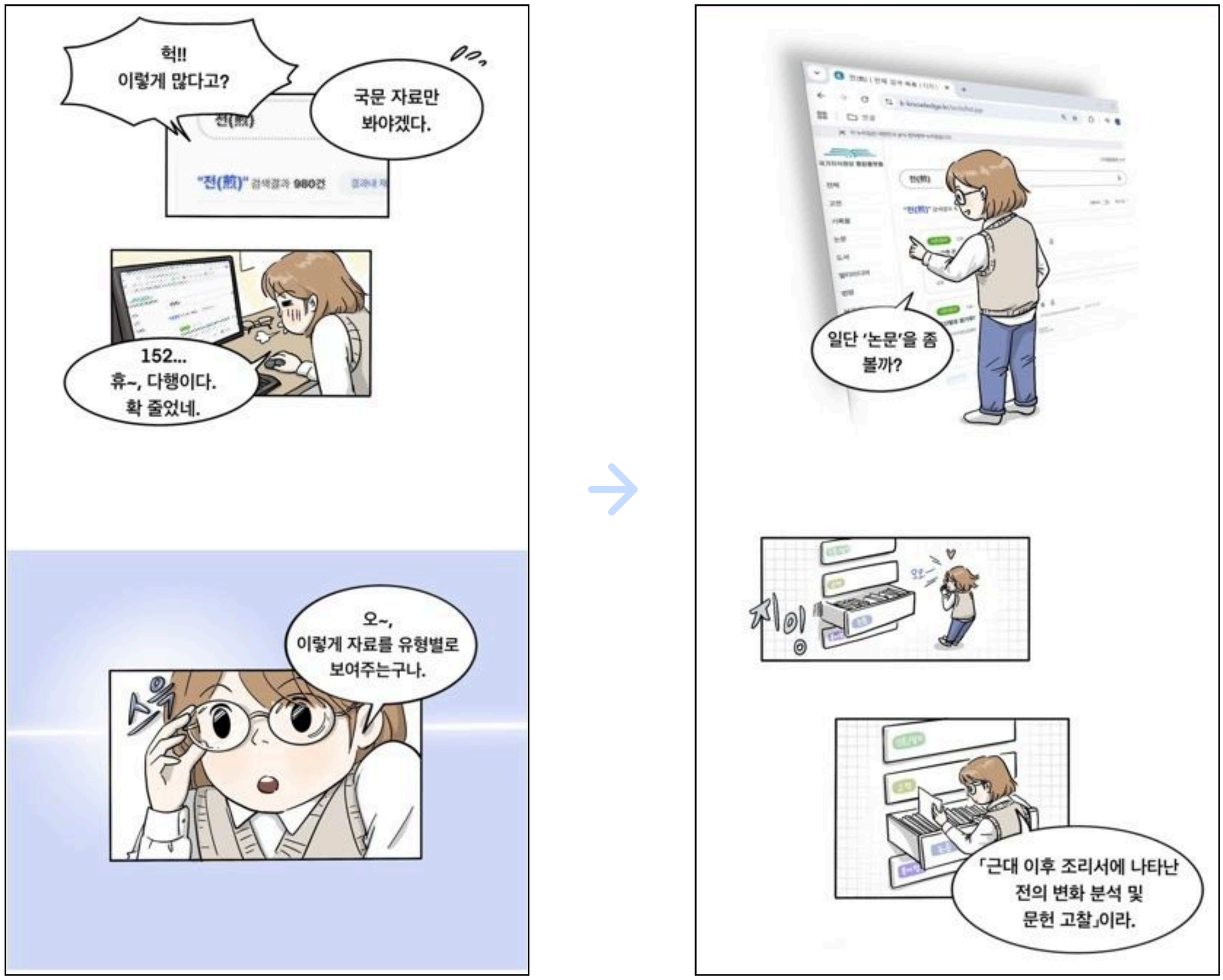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김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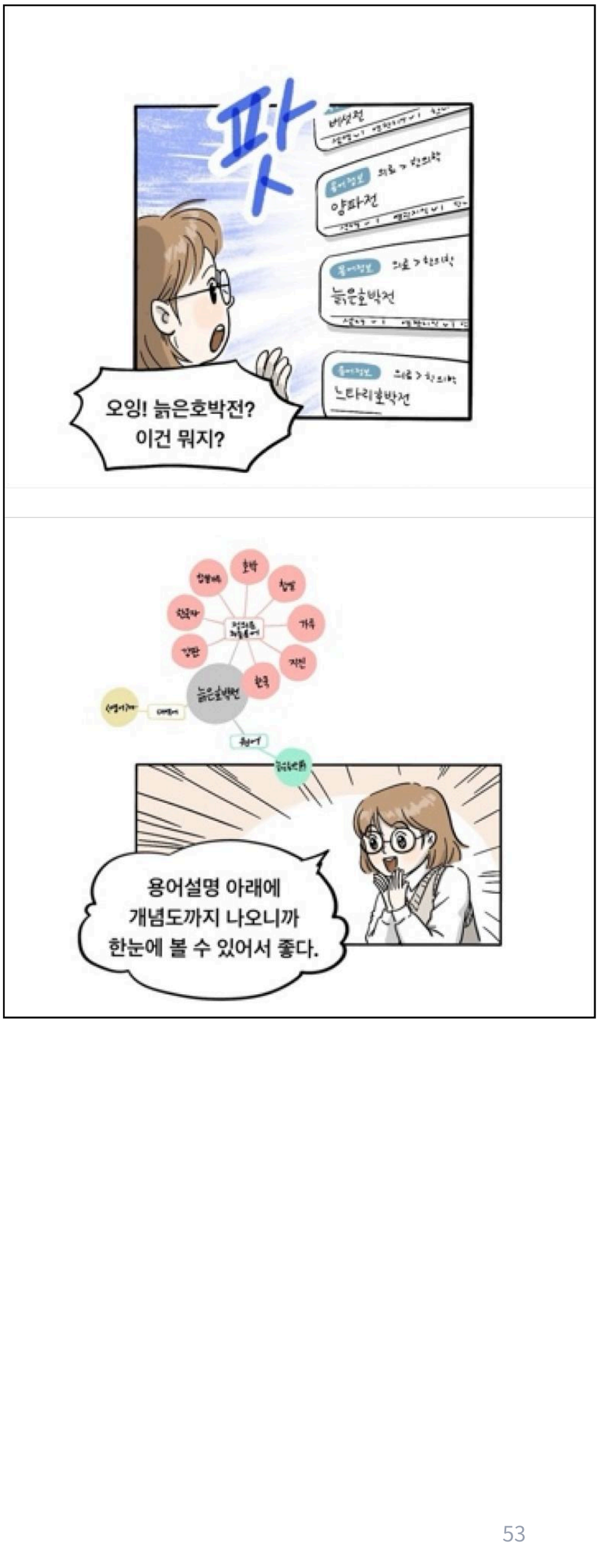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작가님,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 요리 특집호를 준비 중인데요,
작가님께 전에 관한 원고를 청탁하고 싶어서요.
오, 전이요? 재밌겠네요. 그런데 자료 찾기가 관건이겠는데요?
혹시 '디지털집현전' 아세요? 국가 지식 정보를 모아놓은 곳인데 한번 써보세요.
네에...
디지털집현전?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소개
검색창에 '전(煎)'을 넣어보자...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찹쌀가루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
음식 이야기라면
'신문/잡지'를 빼놓을 수 없지.
신문/잡지


어머, 하동에 가면
재첩부침개가 있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기 필요한 자료가
다 모여 있었네~.
굉장한데!
유능한
보조 작가가 생긴
기분이야.

지식의 문을 여는 디지털집현전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모음집

아들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우며

송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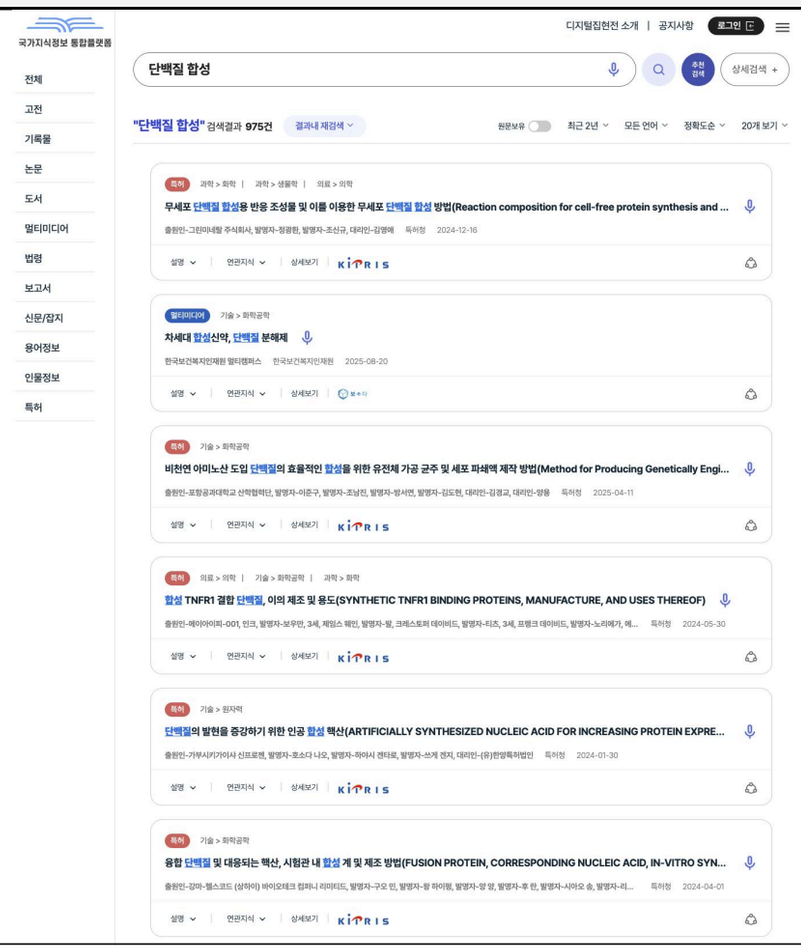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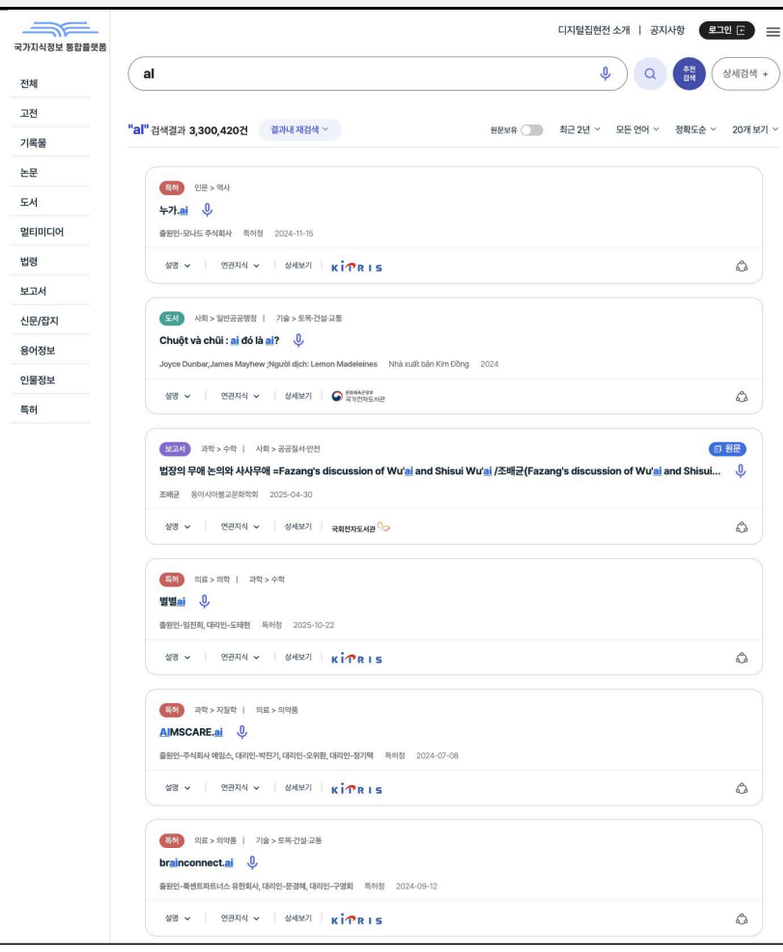
아들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우며

저는 평소 집안일과 가족 돌봄에 집중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아들의 수행평가 과제 제출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방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과제에 쓸 자료를 찾는데 인터넷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 구글로 아무리 찾아도 믿을 만한 자료가 안 나오고, 내가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공신력이 있는 ‘검색 사이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도 논문이나 보고서를 찾아주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혼잣말을 하던 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디지털집현전’이라는 국가 지식 정보 플랫폼에 대한 글을 우연히 읽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 ‘디지털집현전’ 사이트를 클릭하자마자 깔끔하고 직관적인 화면이 나타났고,
학술논문과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며 마치 지식의 보물창고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며 눈이 반짝였지요.

그날부터 아들의 수행평가 자료 찾기는 물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정보 탐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학술 자료를 찾고, 믿을 만한 정보로 과제를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의 ‘디지털집현전 탐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색 예시 : 단백질 합성]	[검색 예시 : AI]
	
단백질합성으로 검색기 “단백질” , “합성”에 대한 결과도 나옴	AI와 관련없는 내용이 많이 나옴

처음에는 디지털집현전이 어떤 사이트인지 잘 몰랐지만, 사용해 보니 학술논문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매우 놀랐습니다. 구글 같은 일반 검색엔진과 달리, 평가에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효율적이었고, 아들도 다양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우며

특히 디지털집현전에서는 아들이 수행평가 주제와 관련된 연관 자료와 저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검색 결과 목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의 원문이 있는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련 논문, 보고서, 그리고 연구 저자에 관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했고, 덕분에 아들이 단편적인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주제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평가 준비 과정에서 주제의 배경부터 최신 연구 동향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고, 각 자료 간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학습에 큰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료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디지털집현전 내에서 충분히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자료 정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저 역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러 곳에서 자료를 모아 일일이 분류하는 번거로움 없이, 디지털집현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관 주제어와 저자별 데이터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효율적인 학습 궤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믿을 만한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 과제 수행 시 자료 신뢰성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안일과 육아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집현전 덕분에 아들의 학습 자료 준비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학습과 연구에 꼭 필요한 지식 정보 플랫폼으로 자주 활용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집현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국가 지식 통합 서비스로서, 아들의 학습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의 학습과 과제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시 디지털집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특히 바쁜 가정에서도 접근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다.
아이가 수행평가나 보고서 과제를 할 때,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학술 자료와 정책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
관련 논문뿐 아니라 주제와 연관된 저자나 연구 기관 정보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자료 탐색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집현전은 단순히 검색 도구를 넘어, 아이가 평소 궁금해 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 학교 공부뿐 아니라 폭넓은 교양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직접 자료를 일일이 찾아 정리할 필요 없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연관 주제 안내를 통해 아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은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술 연구나 자기 계발,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을 때,
논문이나 정책자료, 보고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지식이나 최신 동향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집안의 모든 세대가 함께 활용하는 평생 지식 파트너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들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우며

또한, 디지털집현전은 가족의 학업·연구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계발, 교양 학습, 사회 이슈 파악, 취업 준비 등에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 중인 주제에 대해 부모가 함께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관심 있는 문화·예술이나 건강,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과제나 회사 프로젝트, 자격증 시험 준비 등에서도 공식 자료를 근거로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어, 단순 검색을 넘어 체계적인 학습과 자기 성장에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디지털집현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언제든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일상과 업무 모두에서 유익하게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집현전을 사용하면서 매우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느낀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키워드 검색 시 가끔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치 않는 연관어가 뜨거나,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처음에는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술자료나 정책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영어가 섞인 경우 검색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 초보 사용자나 어린 학생들이 키워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키워드 추천이나 오타 교정,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더 강화되면 사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 내에서도 방대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아 한눈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고, 유사 자료끼리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정리와 필터링 기능이 더욱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가 조금 더 보완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한 플랫폼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청년 자립의
길을 찾다

유00



자립의 시작, 정보의 벽 앞에서

● 국가 지식 정보 활용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

보호 종료 후 처음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시기,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생활비나 주거, 취업 관련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글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식 자료이거나 오래된 정보였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집현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집현전’이라는 이름처럼,
국가의 지식과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가 보니 정책·연구·통계·법령 등 다양한 지식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저 같은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우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디지털집현전은 저에게 “정보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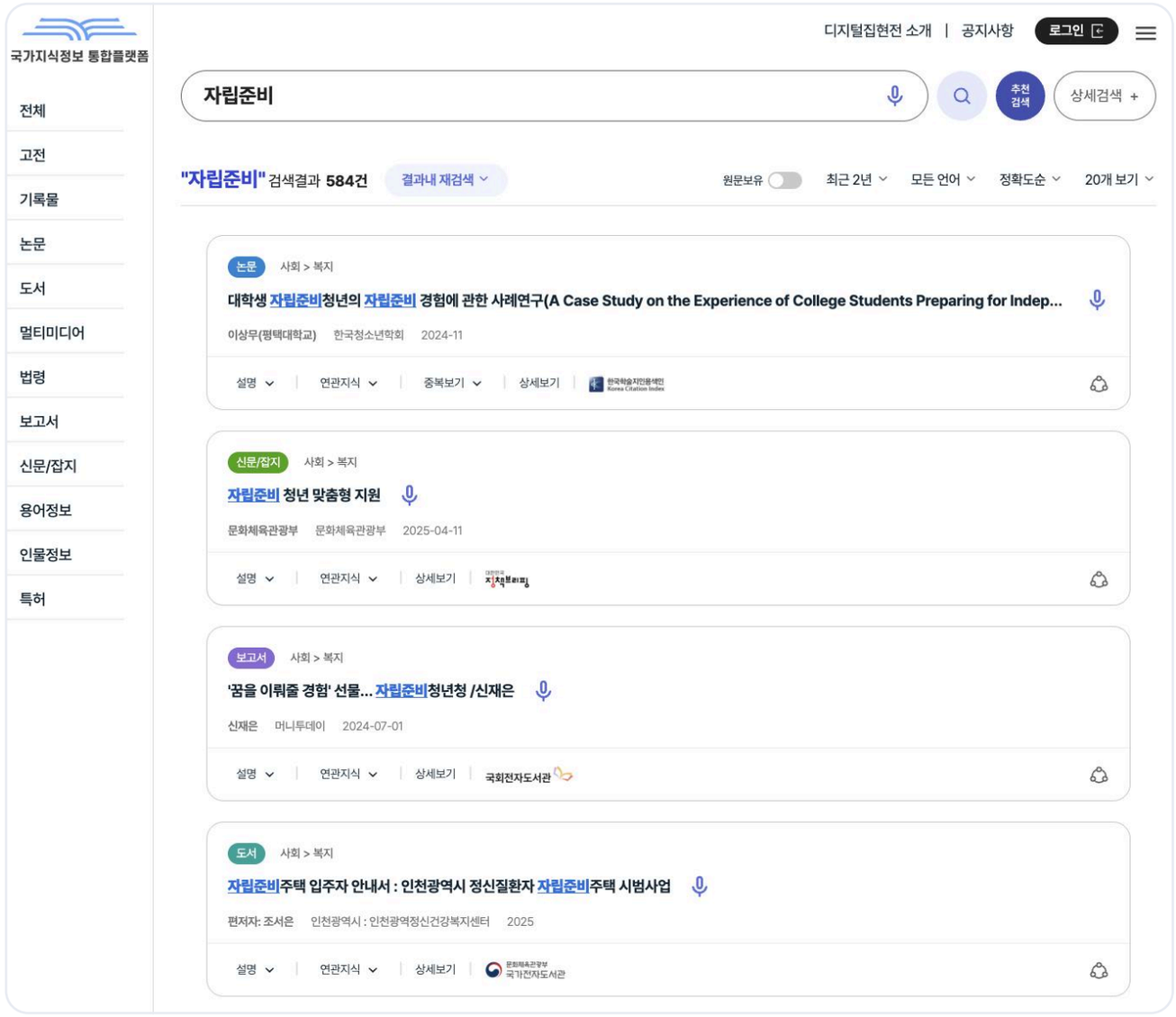
구분	기존 정보 탐색 방식	한계점
인터넷 검색	자료 출처 불명, 신뢰도 낮음	정확한 정책정보 확인 어려움
기관 방문	시간과 비용 부담	접근성 낮음
지인 추천	정보 단편적	최신 정보 부족

디지털집현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처음에는 막연히 “청년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수당’,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 임대 및 매입임대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이
연결되어 나왔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의 통합검색 기능은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어,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단계	활용한 기능	주요 내용	얻은 인사이트
1 단계	통합검색	자립 준비 청년, 주거지원, 생활비 관련 정책 탐색	내게 해당하는 제도 파악
2 단계	정책·연구자료 열람	국책연구원 보고서로 자립지원 정책의 배경 이해	제도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파악
3 단계	즐겨찾기 및 정리	지원 항목·신청 절차 비교	향후 신청 계획 수립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정책정보뿐 아니라, 관련 통계나 연구성과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사회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읽으며, 제가 겪는 불안과 고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공공지식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공감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삶을 설계하다

정보를 정리하고 나니 막연하던 자립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립수당 신청 절차와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 신청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국토부의 청년 전세임대 지원을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주거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정책정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성과도 함께 찾아볼 수 있어,
자립 이후의 재무 관리나 취업 연계 지원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청년 자립의 길을 찾다

이 경험은 “국가지식정보는 전문가나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비록 외부에 보여줄 결과물은 없었지만, 디지털집현전은 제 자립의 출발점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플랫폼이었습니다.

디지털집현전의 특징	설명	사회적 가치
통합된 국가 지식 포털	정책·연구·데이터·법령 정보 통합 제공	정보 접근성 향상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	정부기관 검증 자료만 제공	정보 왜곡 방지
무료·열린 플랫폼	누구나 이용 가능	정보격차 해소
확장 가능한 활용성	학업·연구·생활문제 해결 등 다양한 용도	국민 참여 확대

디지털집현전이 만들어내는 가치

디지털집현전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닙니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방대한 지식을 국민 누구나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국가 지식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연구자·일반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정책정보’와 ‘연구성과’를 함께 보여주는 구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제도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 – 지식을 통한 진짜 자립

디지털집현전을 활용한 경험은 저에게 “진짜 자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 도움만으로는 완전한 자립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집현전은 그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이자, 모든 국민이 지식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정보를 탐색하며,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곳” 그것이 제가 경험한 디지털집현전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

활용 우수사례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